



드라마 <대장금>과 이동희의 기행에세이
《아주 특별한 소리 여행》

정도正道가 신드롬을 만드는 수상한 시절, 대장금과 이동희의 아주 특별한 동행



大長今

드라마 <대장금>을 보지 않고서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는 세상이다. 정사正史에서 벗어난 퓨전사극에는 취미가 없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세를 거스르기엔 '대장금의 세상'을 건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언제부터 궁중음식점의 간판은 '대장금'으로 바뀌어 있고, 수라간 나인에서 의녀로의 변신을 일찌감치 간파한 약국과 한의원, 한약재료상까지 앞다투어 '대장금' 간판을 내걸기 바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휴대폰 벨소리는 대장금 OST '오나라 오나라 아주오나', 연말회식도 고풍스런 궁중음식점을 찾는 '대장금 회식'이 인기다. 서점을 가보아

도 소설과 동화, 심지어 만화 대장금까지 여파란 듯 깔려 있다. 사후약방문이다. 월요일과 화요일 밤 열시, 가족과 <대장금>을 보며 장금의 사람됨에 한마디쯤 거들며 즐기는 수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전례 없는 사회적 신드롬을 형성한 <대장금>의 힘은 무엇일까. 사극에 관한 한 국내 1인자를 자부하던 김재형 PD 역시 <왕의 여자>로 <대장금>과 경합을 벌였으나 "무릎 꿇고 사죄한다. 유구무언이다"라고 한판 패를 인정했으니, 과연 <대장금>엔 뭔가 특별함이 있다. 궁중음식의 대향연을 펼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

2002년 새해 벽두,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 셋이 여행을 떠난다.

남들 다 가는 여행연수도, 배낭여행도 아닌 이들에게는 어른 상체만한 짐이 달려 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악기.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낯선 우리 악기를 들고,

이들은 “세계에 우리 음악을 알리고 10년 동안 공부해 온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 속에서 확인받겠다”는 당찬 꿈을 품고 세상에 용감하게 발을 내디딘다.

6개월간 세계 22개국을 돌며 ‘Walking Corea’의 저력을 보여준 그들의 신명나는 발자취가

책 속에 담겨 있다.

《아주 특별한 소리여행》 이동희 지음 | 이채 | 216쪽 | 값 10,000원



만, 의녀 장금의 활약이 펼쳐지는 시점에서도 <대장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니 합당한 이유는 아닐 터, <대장금>의 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상궁과 장금이 보여주는 ‘세상살이의 정도正道’에 답이 있다. 곧, ‘당신의 상식에서 배우겠다’는 장금의 의지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아스럽다면 되짚어 보라. “장금아, 요리에 비법은 없다. 오직 정성과 마음뿐”이라는 한상궁의 대사에 깊은 울림을 받지 않았던가. 최상궁과 최판술, 그리고 금영의 중상모략 속에서도 차분히 정도를 내딛는 장금의 행보가 실로 낯선 세상이며, 변수와 꿈수로 점철된 수상한 시절, <대장금>은 시원한 청간수로 사람들의 매마른 마음을 축이기 충분했다. 한편 사람들 사이에 ‘한상궁=노무현, 최상궁=최병렬, 서장금=강금실, 정상궁=김대중’으로 비유하는 ‘정치판 대장금 풍자’가 인기인데, 춘철살인의 풍자까지 마련해놓은 <대장금>은 그 종결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확실하게 붙잡아 두고 있다.

자, 이쯤에서 <대장금>이 미친 사회적 반향을 짚어보는 일은 잠시 접어두자. 정도가 신드롬을 만드는 수상한 시절, 또 다른 장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장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이미 들었다는 것이다. 바로 국민가요로 사랑받는 대장금 OST, ‘오나라, 오나라, 아주오나라’를 구성지게 부른 국학도 이동희(24) 씨가 바로 그 인물이다.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전공 등 그의 엘리트적 예술 이력은 국악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국악사랑으로 걸어온 외길인 일단 장금의 이력과 맞짱을 뜰 만하다. 가야금을 전공한 그는 손가락 마비로 가야금을 놓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는데, 그는 “더 큰 국악사랑을 위한 동기였을 뿐”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국악이론으로 과감히 전공을 바꾸고서는, 마당극 탈춤 한국무용 소리 장구 등 국악 전반에 대한 욕구를 닦치는 대로 채우며 가야금을 뺀 건 섭섭한 마음을 달랠 것이다. 의녀로 거듭나게 했던 요소에 장금의 제주도 유배가 있었다면 이동희 씨에게도 생의 전환점을 갖는 유배가 있었다. 국학도에게 굳게 닫힌 취업문을 보아야 했던 그는 친구 차승민, 박영주 씨와 함께 겁도 없이 이국으로 ‘고단한 유배’를 자처하고 떠난다. 십 년 동안 공부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 속에서 확인받겠다는 마음이었다. 정작 이 땅을 떠나는 마음은

고단했을망정, ‘Walking Corea’란 이름을 걸고 세계 22개국을 다니며 우리의 음악을 알린 그들의 발자취에는 신명과 흥이 묻어 있다. 이렇듯 <대장금>의 장금과 비슷한 이동희 씨의 삶의 궤적과 이번 세계 여행기는 《아주 특별한 소리 여행》(이채, 2003)이란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도 강가에서, 네팔 롬비니의 논두렁에서, 베를린 장벽 앞에서, 파리 예술의 다리에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인도 잡화상에 빨랫줄을 사러 갔다 1미터에 10루피를 달라는 상점주인의 바가지에 대충 속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 “우리 그냥 4미터에 10루피로 해요”라며 제안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마님’이라는 호칭만 없을 뿐, 장금의 천진하고 맘씨고운 목소리를 듣는 듯하다. <대장금>을 볼 수 없는 날이라면, 이동희 씨의 드라마틱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리 여행》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비법은 없다. 오직 정성과 마음뿐”이라는 ‘세상살이의 정도正道’가 이 책 속에도 짙게 배어 있다. 이동희 씨는 현재 국악과 팝의 크로스오버 음악인 ‘국악가요’를 발표하기 위해 가수트레이닝중이란다. 퓨전사극을 대표할 <대장금>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우리 앞에 놓일 참인데, 기자는 책과 텔레비전을 오가며 장금과 이동희 씨의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답게 귀결되기를 바랐다. ☞

취재 박용두 기자